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갈등 해소 주목

여수시 "부지 제공해 건립" vs 시의회 "국가시설에 무상제공 부당" 박람회장 내 건립 촉구 '시민청원' 정족수 넘어 향후 해법될지 관심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민원이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여수시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제공에 대해 발생한 여수시와 시의회 간 갈등양상도 해결될지 주목된다.

권오봉(사진) 여수시장은 지난 14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청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고,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10월 말 열린 국회 예결위 국비 확보를 위해 시의회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다"며 "박람회재단으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에 있는 기상과학관 5개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여수시가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양기상과학관은 시민사회가 기다리던 대표적 공익사업인 만큼 국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실제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정식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며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국가시설을 건립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돼 2020년 국비 11억원(실시설계비)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특히 시의회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박람회장 내 한국관 옆 '가스 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어린이공원 부지'는 재단 측에서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며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 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

율이 20%밖에 안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시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여수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 5000㎡를 정하고 매입 예산 7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반면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결했다.

시의회가 여수시의 부지 매입에 제동을 걸자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성립 기준인 300명을 넘는 455명이 서명했다.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제도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000㎡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부지비용을 제외한 총 26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순사건 70주년 제작한 웹드라마 '동백'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4개 부문 후보에

여수시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저예산 관광홍보 웹드라마 '동백'이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 진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웹드라마 '동백'은 이번 웹페스트 어워드에서 베스트 드라마,

사운드트랙, 프로덕션 디자인, 캐스팅 등 4개 부문 황금극대상 후보에 올랐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는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웹영화제다. 올해는 22일부터 5일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행사가 열리며 수상

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시상한다.

여수시 웹드라마 '동백'은 지난 8월 '2019 서울웹페스트 어워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동백을 통해 해외에 여수 관광을 홍보하고 여순사건도 소개할 계획"이라며 "저 예산으로 제작한 영화지만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웹드라마 사업에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영화 '동백'의 한 장면이다.

19일 여순사건 71주년 합동추념식 때 '목념 사이렌'

여수시 전역 1분간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열리는 19일 오전 11시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목념사이렌이 울린다.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에 맞춰 지역 16개 민방위 경보시설에서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한 평탄음을 방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목념사이렌을 행사에 도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이렌 취명 승인을 받았다"면서 "시민들이 목념사이렌을 민방위 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은 19일 이순신광장에서 여수시장과 지역 정치인, 여순사건 유족회원, 사회단체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전 10시 4대 종교단체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추모사, 헌화 및 분향 등이 이어진다. 오후 7시부터는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제가 진행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모식.

여수서 11월 9일 '로드 FC' 격투기 개최

목포 출신 권아솔 복귀전 티켓 1차 판매 분량 매진

아시아권 최대 격투기 단체인 로드 FC(대표 김대환)가 오는 11월 9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굽네몰 ROAD FC 056'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권아솔의 복귀전으로 국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회 티켓 1차 판매 분량이 매진돼 화제다.

15일 ROAD FC에 따르면 이번 굽네몰 ROAD FC 056대회는 지난 2010년 출범한 ROAD FC 대회 최초로 여수에서 열린다.

목포 출신인 권아솔과 '하빔 사촌형' 사릴 자브로프 대결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대회는 '밴텀급 챔피언' 김민우가 1차 방어전을 장악한 선수와 치루며 밴텀급 타이틀 향방도 결정 짓는다.

앞서 로드FC는 여수출신 고기원 선수 경기 등 총 6경기의 남배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ROAD FC 여수 대회는 한국프로복싱연맹(KPBF) 회장인 이항수 대표장이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ROAD FC 출범 후 첫 전라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경기내용도 권아솔과 사릴 자브로프의 대결은 물론 밴텀급 챔피언 김민우의 1차 방어전 등 호화 라인업으로 구성해 흥행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항수 여수 대표장은 "다른 대회와 달리 선수들에게 특급 호텔 등 최상급 대우를 제공하는 ROAD FC 대회가 자연경관과 음식·숙박이 훌륭한 국내대표 관광도시인 여수에서 치러지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젊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권아솔 전 챔피언 경기 등 많은 스포츠인과 격투기인들이 여수에 오는 만큼 여수대회가 성공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권 최대 규모 국내 대표 이종격투기 단체인 로드FC는 지금까지 55회에 걸쳐 순회 경기를 이어오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 격투기 흥행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굽네몰 ROAD FC 055에서는 전석 매진을 기록, 만원 관중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로 제공되는 ROAD FC 대회가 자연경관과 음식·숙박이 훌륭한 국내대표 관광도시인 여수에서 치러지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젊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권아솔 전 챔피언 경기 등 많은 스포츠인과 격투기인들이 여수에 오는 만큼 여수대회가 성공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권 최대 규모 국내 대표 이종격투기 단체인 로드FC는 지금까지 55회에 걸쳐 순회 경기를 이어오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 격투기 흥행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굽네몰 ROAD FC 055에서는 전석 매진을 기록, 만원 관중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외지인 대상 여수~거문항 여객선 비용 50% 지원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을 오가는 여객선 비용 5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외지인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고 거문도·초도·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다. 단, 고흥 나로도항을 이용하면 여객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여수시는 겨울철 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역사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거문도를 값싸게 다녀올 좋은 기회"라며 "지역 홍보와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막기 민간감시원 30명 모집

여수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감시원 30명을 모집한다.

민간감시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불법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등을 단속한다. 또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 단속도 보인다.

감시원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급식비 포함 한 달 평균 200만원 수준이다.

여수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합격자를 시정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태양광발전소 **선** **각** **순** **분** **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